

 해외건설협회 <small>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</small>	원팀코리아 간담회 (2024 Next cityscape 타운홀 미팅) 결과보고	정책지원단
		2024.2.20(화)

□ 행사 개요

- 일시/장소: 2024.2.16.(금), 16:00~18:00/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
 - 목적 :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민,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, '24년 원팀코리아의 방향성을 모색
 - 참석자 : 장관님, 원팀코리아 기업, 정책수요자*, 공공기관 등 80여 명
- * ODA 사업 참여기관, OJT 현장 파견자,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

□ 주요 일정

시간		프로그램	내용
16:00~16:03	3'	개회	• 사회자 (대변인실 박은주 事)
16:03~16:08	5'	주제발표	• 해외건설협회 (이용광 실장) - '24년 해외건설 수주전망
16:08~16:13	5'		• KIND (이광복 실장) - 우리기업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
16:13~16:23	10'		• 대우건설 (유영민 상무) - 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
16:23~16:33	10'		• LH 토지주택연구원 (정연우 박사) - 해외도시개발 사례와 민관합동 진출방안
16:33~16:38	5'	모두말씀	• 장관님
16:38~16:50	12'	타운홀미팅 (도시개발 추진전략 ·건의사항 등)	• 건설 - 삼성물산, 한화건설 현대건설
16:50~16:54	4'		• 엔지니어링 - 도화ENG
16:54~17:02	8'		• IT·모빌리티 - 네이버, 엔젤스윙
17:02~17:18	16'		• 공공기관·ODA 등 - LX, 국가철도공단, 한국공항공사, 수은
17:18~17:26	8'		• 정책수요자 - OJT, 마이스터고 졸업생
17:26~17:30	4'	기념촬영 및 폐회	• 단체 사진촬영 (참석자 전원)

□ 주요 내용

○ 주제(해외도시개발 수주전략 등) 발표*

* 세부사항 등은 발표자료(별도 첨부) 참고

- '24년 해외건설 수주전망(해외건설협회 이용광 실장)
- 우리기업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(KIND 이광복 실장)
-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 진출사례 :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(대우건설 유영민 상무)
- 해외도시개발 사례와 민관합동 진출방안(LH 토지주택연구원 정연우 박사)

○ 장관님 모두말씀

- 작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을 살펴보면, 5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해외건설은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업체들끼리 경쟁하여 개별 도급 공사(플랜트 등)를 수주하여 외화를 가득하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
- 이제는 해외건설의 고부가가치화,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며, 우리가 역량을 쏟아야할 모델은 스마트시티 등 해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판단함. UN의 인구 증계 추가에 따르면, 현재 75억 명 수준에서 2050년까지 100억명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임. 이를 위해서는 매주 140만명~50만명 수준의 도시개발이 필요한 상황임
- 도시개발사업에는 단순 주택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인프라인 교통, 상하수도, 전력망 등이 동반되어야 함. 이에 다양한 우리 기가재, 서비스, ICT 인프라 등까지 패키지로 더한다면 부가가치가 높고 수익 관련 후방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함
- 이를 위해 우리 부는 적극적인 내·외부 협력을 통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(KIND, LH 등), 관계부처 및 금융 공기업(수은, 무보 등)과 함께 앞단에 나서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분담하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
-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을 모아 원팀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을 우리의 주력 해외 진출모델로 삼아 'Next cityscape'를 그려보고 개발도상국 등의 무궁무진한 도시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

○ 도시개발 추진전략·건의사항 등 간담회

① 건설·엔지니어링 부문

- 삼성물산 이경수 부사장(해외개발 본부)

- 해외사업개발본부를 담당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은 크게 2가지임. 첫 번째는 예전에 비해 높아진 인건비와 고비용 구조이며 두 번째는, MZ 세대는 시공 관리나 오지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임
-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도급방식으로는 어려우며, 투자개발방식으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나, 프로젝트 금융(PF),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 경험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떨어져 있음
-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에 대한 지원 및 활용이 중요함. 현재 각종 공기업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원을 받고 있으나, 선진국(일본 등)처럼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
- 또한, 향후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4차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활용이 중요함.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산단 개발, 스마트 시티 개발 등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(PC), 모듈러 등 Off-site Construction(OSC), 디지털트윈 등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
- 건설업계와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함께 패키지로 진출하여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해외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할 것임

→ (장관님 답변)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요소 기술들을 접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이해함. 관련 지원방안을 고민해보겠으며, 패키지 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

- (주)한화/건설 최원균 부사장(경영지원본부)

- 우리 (주)한화/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해외사업 추진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. 본 사업은 '12년 5월 계약 체결 이후 다수의 문제가 있었던 사업임. IS사태, 코로나 확산, 반정부시위, 유가 급변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, '22년 10월에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됨

- 다행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상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 말 미수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음. 잔여 사업 재개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국제정세, 이라크 정부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
- 드리고 싶은 건의 사항은 민간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대외적인 리스크를 분담해주길 요청드립니다. 예를 들어, 본 사업은 변경계약이지만 이라크 정부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. 발주처 분양 안정화까지 자금투입 부담이 경감되어 원활한 기성 수급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고, 비스마야 이후 제2의 신도시 개발로서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함

→ (장관님 답변) 비스마야 사업은 정부가 발주한 선도형 도시개발사업임. 향후 추가 주택 등 도시개발수요를 생각해본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. 본 사업은 폴란드 탱크 수주 등 사업과 비교했을 때 확장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보여짐. 수은 측에 지원을 요청드립니다

- 현대건설 김경수 본부장(글로벌사업부)

- 우리 현대건설은 도급사업의 한계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. 현대건설은 매년 50~60억불 규모로 도급사업을 수주하나, 수익성은 높지 않음. 또한, 중국, 터키, 인도 등 업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경쟁력이 없음
- 향후에는 기술력이 동반되고 수익성이 높은 수소플랜트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투자개발형 사업을 동시 진행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임
- 우리 기업은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, 1. 인프라 사업, 2. 도시개발사업 크게 두 가지 구조로 추진 중임. 인프라 사업은 PIS 펀드를 이용하여 KIND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.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베트남 하남 신도시와 뉴질랜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
- 드리고 싶은 건의 사항은 투자개발형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초기 투자를 위해서 많은 자금투입이 필수임. KIND 외 수은, 무보 등 타 기관의 F/S 등 지원과 토지 인허가 시 외교부·대사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소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

→ (장관님 말씀) 도급사업 고도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의 발언 요
지에 대해 공감함. 초기 투자 관련 금융지원, 간접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함

- 도화ENG 김용구 사장(글로벌 지원부문)

- 도화 ENG은 '19년도 국토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건설협회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해주시어 원팀 코리아 구조로 페루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음. 향후 공항 완공 후 쿠스코 기존 공항 부지와 신공항 부지 근처로 도시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함
- 현재 도화ENG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 사우디 해외도시개발사업은 다른 인프라 사업과는 다르게 한국의 경험을 단순하게 공유하여 현지에 이식하기는 어려움
- 향후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단일 기업의 힘만으로는 수주가 어렵다고 생각함. 페루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과 같이 정부-공기업-협회-기업 간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함
-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IT·모빌리티와 엔지니어링 간 협업을 기대하며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앞단을 구축하겠음

→ (장관님 말씀) 엔지니어링 업계는 ODA사업을 통해 해외건설사업의 앞
단 부분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

② IT·모빌리티 부문

- 네이버 손지윤 이사(정책전략 총괄)

- 원팀 코리아와 패키지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보임. 처음에는 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제 성과로 연결되고 있음.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(1억불)을 수주함. 이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서 향후 LX, 스타트업 등 패키지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
- 그리고 싶은 건의 사항은 사우디 교통, 주택 관련 당국과 협업은 무리 없이 잘되고 있으나, 그 외 다른 부문의 부처인 과기부, 데이터청 등과 는 협업이 어려움.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을 요청드림

→ (장관님 말씀) 현 대통령님의 기조에 힘입어 전 부처가 협업하는 노력을 통해 사우디 과학기술부 등 타부처와의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음

- 엔젤스윙 박원녕 대표

- 엔젤스윙은 드론 및 AI 컴퓨터 비전 기술력을 통해 실제와 같은 건설 현장을 구축하여 건설 전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노력하는 회사임. 이전까지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은 없었으나, 원팀코리아 사우디 수주 지원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는 사우디, UAE 및 인접 국가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건의 사항으로는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음. 예를 들면, 협의체에서 대기업과 동등하게 배석되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제공되고, 해외시장 파악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음. 우리나라 청년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림
- 또한, 사업 발굴 후 인허가, 초기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요청드리며 패키지 진출을 위해서 해외건설지원사업에 다양한 업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게끔 지원범위 현실화 등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음

→ (장관님 말씀) 해외건설지원정책의 지원범위 현실화에 대해 공감하며,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음

③ OJT 지원사업 관련

- 한미글로벌 정요한 프로 ·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김석화 지원관

-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국토부 및 해외건설협회에게 감사인사를 드림. OJT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근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, 대한민국 해외건설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낌
- 이 자리를 빌어 더 많은 청년들이 OJT 기회를 통해 자주 해외 경험을 했으면 좋겠음. 현재는 매 반기마다 해외 6개월을 보내고 있는데, 향후에는 더 많은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인력이 해외에 갔으면 좋겠음

→ (장관님 말씀)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상시 소통하겠음

④ 공공기관, ODA 발표 및 건의사항

- 한국국토정보공사(LX) 어명소 사장

- LX는 공간정보에 특화된 공기업으로서 그동안 지적측량, 토지등록 및 공간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. 현재는 네이버와 협업하여 사우디 디지털트윈 구축사업과 베트남 도시관리 정보화사업이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
- 향후 LX는 플레이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며, KIND 등 공기업이 사업을 발굴해주시면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원팀 코리아 진출을 추진하겠음

- 국가철도공단 임종일 부이사장

- 저희 국가철도공단은 해외 8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, 현재는 폴란드-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 최근에는 90KM 규모의 체코 고속철도 설계사업을 수주하였으며, 이 사업 이후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기대함
- 해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이 중요함. 교통 중에서는 수소 등 저탄소 교통이 중요함. 특히, 중동 지역에서 저탄소 철도 인프라를 선호하고 있음
- 우리나라는 궤도, 신호, 통신, 차량기지, 운영, 유지·관리 시스템 등 철도사업 관련 전·후방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임. 이러한 경쟁력을 살려 전반적인 사업관리는 본 공단이 담당하고 시공실적은 업체들이 가져가는 등 컨소시엄 구조로 하여 다른 업체들과 원팀으로 진출하고자 함

- 한국공항공사 허주희 본부장

- '19년도부터 원팀코리아로 페루 친체로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음. 금년도에는 라오스 제2공항 루앙프라방 PPP사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해당 공항개발 PPP사업은 주변 지역 및 도시에 개발이 주축이 되는 앵커역할을 하고 있어, 향후 도시개발 관련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함

- 본 공사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 번째로는 정책자금의 PPP 강화임. 글로벌 PPP 투자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우리 기업 PPP 수주액 비중은 4.5%~5.0% 수준으로 유지되며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. 기업의 PPP 사업을 위해 사업개발을 위한 자금의 우선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함
- 두 번째는 국토교통 ODA사업 대형화임. 현재는 사업별 규모가 작아 대부분 PPP 수주 이전 단계의 F/S, 마스터플랜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사업 대형화를 통해 직접적인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직접 지원하고, 길게는 본 사업(PPP 등)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임. 이를 위해서 주요 프로젝트는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

- 한국수출입은행 정순영 부행장

- 석유, 구리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생각하였을 때 타 분야 개발사업보다 도시개발사업은 매우 적절한 전략으로 판단됨
-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도시를 개발해왔고, 동시에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건설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등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음
- 다만, 대우건설 사업 사례를 보면, 사업 하나를 성공시키는데 긴 기간 동안 큰 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요함.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성을 제고한다면 도급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
- 수출입은행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업개발 등 사업 전반 advisor 역할도 수행이 가능함.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음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이강훈 사장

- KIND는 One-team Korea라는 유니폼을 입고 기업들과 같이 필드에 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그러한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사업을 진행할 때 생기는 위험을 감수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

- KIND는 앞으로도 투자개발형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음. 자본금 한도 증액, PIS 2단계, 환경부 녹색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지원자금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음

-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

- 해외건설협회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해외건설업계와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음
- 해외투자개발사업 중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목, 건축, IT, 에너지, 환경 등 다양한 공종에 대한 이해도와 공공-민간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함. 따라서, 다소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
-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님. 한국이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건설 기술과 같이 수출하고 이를 현지에 이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쟁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어느 정도 우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함
- 우리의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,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업을 위한 폭넓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. 해외건설협회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□ 세미나 사진



□ 향후 계획

- 발표 자료 공유 및 금년도 해외건설 정책 수립 시 관련 자료로 활용

- 정책지원단 -